

남북한 관계에서 한민족 범주복잡성과 한민족동일시가 외집단 관용 및 집단 간 통합지향 행동의도에 미치는 효과

이 하 연 최 훈 석† 노 중 현 도 은 별 한 지 민

성균관대학교

본 연구는 남북한 관계에서 공동 상위범주인 한민족의 범주복잡성이 낮거나 높다고 지각할 때 한민족동일시가 북한에 대한 관용과 남북한 통합지향 행동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높은 한민족 범주복잡성은 한민족이 다양한 속성을 지닌 하위집단들로 구성되었다는 지각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남한 사람들이 한민족을 남북한뿐만 아니라 여러 하위집단(예: 한국계 외국인, 재외국민 등)으로 구성한다고 지각할 때 한민족동일시가 외집단인 북한에 대한 관용을 매개로 남북한 통합지향 행동의도를 정적으로 예측한다는 가설을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실험에서는 남한 대학생($N = 124$)을 대상으로 한민족동일시 수준을 측정하고 한민족의 범주복잡성(높음 vs. 낮음)을 조작하였다. 실험 결과, 한민족 범주복잡성이 높은 조건에서 참가자들의 한민족동일시 수준이 높을수록 북한에 대한 관용 수준이 높았다. 반면 한민족 범주복잡성이 낮은 조건에서는 한민족동일시가 북한에 대한 관용을 예측하지 못했다. 그리고 한민족 범주복잡성과 한민족동일시의 상호작용이 북한에 대한 관용을 매개로 남북한 통합지향 행동의도를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본 연구가 남북관계에 관한 심리학 연구에 시사하는 바와 장래 연구과제를 논의하였다.

주요어 : 한민족 범주복잡성, 한민족동일시, 외집단 관용, 남북한 화해와 통합

†교신저자: 최훈석,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E-mail: hchoi@skku.edu



© 2023, Korean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개인이 특정 집단에 소속되어 경험하는 사회 정체성(이하 내집단 정체성)은 그 사람의 자기 정의(self-definition)를 구성하는 핵심요인이자 집단 간 상호작용에서 내집단 선호와 외집단 배척을 유발하는 동기적 토대이다(Hogg, Abrams, & Brewer, 2017). 남북한 관계에서도 한국인들의 내집단 정체성은 내/외집단 및 남북한 화해와 통합에 관한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인들의 내집단 정체성은 남/북한 국민으로서의 국가정체성과 한민족 구성원으로서의 민족정체성이 층소된(nested) 구조로 존재한다(최훈석, 이하연, 정지인, 2019; Jung, Choi, & Hogg, 2016; 참조: Crisp & Hewstone, 2007). 한민족은 하위범주 남북한이 공동으로 소속된 상위범주로, 한민족정체성이 우세한 남한 사람들은 북한을 공동의 내집단으로 인식하고 따라서 북한이나 남북한 사회통합에 대해 우호적 태도를 지닌다(예: 유연재, 김혜숙, 2000; 최훈석 등, 2019; Jung et al., 2016).

그러나 공동의 상위범주가 존재하더라도 하위수준에서 외집단보다 내집단이 상위범주의 전형적이고 이상적인 집단이라고 지각하는 내집단 투사(ingroup projection)가 발생하면 오히려 외집단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와 행동이 유발된다(Wenzel, Mummendey, & Waldzus, 2007). 즉, 남북한 관계에서 한민족정체성을 강하게 지닌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남한사람들은 전형적인 한민족이지만, 북한은 진정한 한민족이 아니다'라는 배타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예: 이하연, 권영미, 서정길, 박주화, 최훈석, 2022). 이러한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구성원들이 공동 상위범주를 어떻게 표상하는지, 그리고 상위범주와 하위범주에 얼마나 동일시하는지 등에 따라서 강화되기도 혹은 약화되기도 한다(Wenzel, Waldzus, & Steffens, 2017).

이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남북한 관계에서 공동 상위범주인 한민족의 표상과 한민족에 대한 동일시가 남한 사람들의 북한에 대한 관용과 남북한 통합을 지향하는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한민족이 각각 고유한 속성을 지닌 다양한 하위범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표상(한민족 범주복잡성)이 북한에 대한 관용과 남북한 화해 및 통합에 우호적인 태도와 행동의도의 토대가 될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외집단 관용에 대한 상위범주 동일시의 효과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자기범주화(self-categorization)와 내집단 동일시(ingroup identification)는 집단 간 관계에서 내집단 선호와 외집단 배척을 유발하는 핵심 요인이다(Tajfel, 1974; Tajfel & Turner, 1986). 외집단에 대한 배척과 편견은 집단 간 갈등을 심화하고 집단 간 갈등은 외집단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상호성도 존재한다(Bar-Tal & Halperin, 2011; Vallacher, Coleman, Nowak, & Bui-Wrzosinska, 2012). 남북한 갈등은 이념 및 체제갈등을 수반하며 한정된 자원(영토)을 두고 오랜 기간 지속된 고착된 갈등(intractable conflict)의 전형적인 사례이다(이하연 등, 2022; 최훈석 등, 2019). 따라서 남북한 갈등 해소와 화해 및 통합을 위해서는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해소하는 것이 필수적이다(Bar-Tal, 2000, 2007).

외집단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내외집단의 차이를 인정하고 외집단이 지닌 고유한 속성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평가가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를 외집단 관용(outgroup tolerance)으로 규정하였다(Park & Judd, 2005; Wenzel et al., 2007). Mummendey와 Wenzel(1999)은 내외집단의 차별적인 속성이 양립 가능한 것으로 여겨질 때 외집단에 대한 관용이 증진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이들은 개인이 여러 수준에서 다양한 사회범주에 소속된다(Turner, 1987)는 전제를 토대로, 공동의 상위범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하위범주 외집단이 상위범주의 전형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지각될 경우 외집단 관용이 가능하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공동 상위범주에 대한 동일시가 하위범주

외집단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증진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관된다(Dovidio et al., 2007; Gaertner, Anastasio, Bachman, & Rust, 1993).

그러나 상위범주 동일시가 항상 하위범주 외집단에 대한 관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내집단 투사 모형(ingroup projection model, Wenzel et al., 2007)에 따르면, 상위범주와 하위범주에 대한 동일시 수준이 모두 높을 경우(즉 이중 사회정체성이 우세한 경우), 하위수준 내집단의 독특하고 긍정적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같은 상위범주에 속한 외집단을 폄하하는 동기적 편향이 발생한다. 이는 내집단의 고유한 속성을 상위범주의 전형적인 속성인 것으로 투사하여 지각(내집단 투사)하는 반면 외집단의 고유한 속성은 전형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절하하여 내집단의 상대적 우월성과 긍정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Mummendey와 Wenzel(1999)도, 상위범주를 기준으로 하위범주 내외집단에 대한 주관적인 비교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외집단 관용이 나타날 수도 있고 사회적 차별(social discrimination)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과 일관되게, 이하연 등(2022)의 연구에서 남한 사람들이 한민족과 남한에 모두 강하게 동일시할수록 높은 수준의 내집단 투사를 매개로 하여 남북한 통일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추론하면, 상위범주에 대한 동일시가 하위수준 외집단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유발할 수도 있고 부정적 태도를 유발할 수도 있다. 내집단 투사 모형에서는 이와 같은 상위범주 동일시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분기하는 상황 및 요인을 구체화하였다(참조: Wenzel et al., 2007). 여러 요인 중 한 가지는, 개인에게 상위범주보다 하위범주 정체성이 중요시될 경우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하위범주 내집단의 독특하고 긍정적인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강하게 동기화되기 때문에 공동 상위범주에 속한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하연 등(2022)의 연구에서

도 한민족보다 남한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이 중시될 경우 이중 사회정체성이 내집단 투사를 예측한 반면, 남한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이 덜 중시될 때는 이중 사회정체성이 내집단 투사를 예측하지 못하였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내집단 범주의 표상에 따라서 상위범주에 대한 동일시의 효과가 달라진다. 특히 상위범주가 서로 배타적이고 경쟁 관계인 소수의 하위범주로 구성되기보다 다양한 속성을 지닌 여러 하위범주로 구성된다면 지각될 경우 내외집단의 고유한 속성을 인정하는 외집단 관용이 증진될 가능성이 있다. 다음 절에서는 이와 같은 범주복잡성(category complexity)의 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들을 논의한다.

상위범주 동일시 효과의 조절요인: 상위수준 범주복잡성

하위수준 외집단 태도에 대한 상위수준 범주복잡성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Waldzus, Mummendey, Wenzel과 Weber(2003, 연구 2)는 독일인들을 대상으로 상위범주(유럽)의 다양성(diversity) 혹은 단일성(unity)을 떠올려 서술하도록 하여 상위수준 범주복잡성이 높거나 낮도록 실험실에서 조작했다. 그리고 종속변수로 내집단 투사와 외집단(폴란드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했다. 이에 더해 이들은 개인차 요인으로 상위범주와 하위범주에 대한 동일시 수준을 각각 측정하여, 두 범주동일시 수준이 모두 높을수록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강한지 검증했다. 그 결과, 내집단 투사 모형의 예측과 일관되게 상위-하위범주 동일시 수준이 모두 높은 참가자들에게서 높은 수준의 내집단 투사와 외집단에 대한 배타적 태도가 관찰되었다. 그리고 상위-하위범주 동일시 효과와 독립적으로, 상위수준 범주복잡성이 높은 조건에서 낮은 조건보다 내집단 투사 수준이 낮았으며, 상위수준 범주복잡성이 내집단 투사를 매개로 외집단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경감하는 간접효과가 유의했

다. 이는 상위수준의 범주복잡성이 상위-하위범주 동일시와 독립적으로 내외집단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인들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실험연구(Waldzus, Mummendey, & Wenzel, 2005)에서 상위수준(유럽) 범주복잡성을 같은 방식으로 조작했을 때, 범주복잡성이 낮은 조건보다 높은 조건에서 내집단 투사 수준이 낮고 외집단(영국인과 이탈리아인)에게 우호적 태도를 보였으며 범주복잡성의 외집단 태도에 대한 효과가 내집단 투사에 의하여 매개되었다. 또한, Ehrke, Berthold와 Steffens(2014)은 독일 학부 및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두 시간 혹은 하루 동안 진행되는 다양성 훈련(diversity training) 프로그램이 외집단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현장개입연구를 실시하였다. 다양성 훈련 프로그램은 특정 외집단을 상정하지 않거나(연구 1) 성별에 따른 내외집단(연구 2)을 상정한 상태에서, 집단이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지닌 성원들로 구성됨을 교육하는 여러 과제(예: 대상을 다양한 시점에서 관찰하기, 고정관념에 관하여 혼성집단에서 토론하기)로 시행되었다. 그 결과 다양성 훈련을 받은 개입 조건에서 통제조건보다 상위수준(“학생” 혹은 “독일인”) 범주복잡성 인식이 증진되었으며, 이는 긍정적인 외집단 태도(예: 남녀, 성소수자, 연령집단)를 예측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실험실에서 형성된 임시집단에서도 상위수준 범주복잡성이 하위수준 내외집단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었다. Peker, Crisp와 Hogg(2010)의 연구에서는 상위범주 표상을 복잡성(상위범주 속성이 여러 하위집단이 지닌 다양한 속성으로 구성되어있는 정도)과 일관성(범주 속성들이 명확하고 분명하게 인식되도록 구조화된 정도) 차원에서 조작하여 각 요인의 효과를 검증했다. 그 결과 두 편의 실험에서 일관되게 표상의 일관성 수준과 관계없이 상위수준 범주복잡성이 높은 조건에서 낮은 조건보다 내집단 투사가 경감되었다. 임시집단을 활용한 또 다른 실험연구

(Alexander, Waldzus, & Wenzel, 2016, 연구 1)에서도, 하위범주 중 다수집단 구성원들에게서 상위수준 범주복잡성이 높은 조건에서 낮은 조건보다 내집단 투사가 경감되었다. 한편 같은 연구에서 하위범주 중 소수집단 구성원들에게서는 오히려 상위수준 범주복잡성이 높은 조건에서 낮은 조건보다 내집단 투사가 증진되었고, 이러한 결과는 실제 다수-소수집단(포르투갈 원주민-이주민) 성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들의 후속 연구에서 반복검증되었다(Alexander et al., 2016, 연구 2). 이는 상위수준 범주복잡성이 하위수준의 다수집단에게는 소수집단의 전형성 인정음, 소수집단에게는 내집단의 고유한 속성이 다수집단의 속성만큼이나 전형적이라는 인식을 불러일으킨다는 것, 즉 상위수준 범주복잡성이 하위수준 다수-소수집단이 대등하게 상위범주의 전형적인 집단이라는 지각을 일으킨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범주복잡성의 효과를 검증한 일련의 조사 및 실험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상위수준 범주복잡성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내집단 투사가 경감될 뿐만 아니라 외집단에 대한 태도가 우호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선행연구들은 유럽 국가들에서 수행되었다. 보다 중요하게, 하위수준 외집단 태도에 대한 상위범주 동일시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효과를 조절하는 요인으로 상위수준 범주복잡성이 제안되기는 하였으나 본 연구자들이 파악하기로 이를 직접 검증한 연구는 보고된 바 없다.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상위-하위범주 동일시를 측정하여 두 범주동일시 수준이 모두 높은(중간점 이상)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상위수준 범주복잡성의 효과를 검증하였다(Ehrke et al., 2014; Waldzus et al., 2005). 일부 연구에서는(Waldzus 등, 2003, 연구 2) 상위수준 범주복잡성 조건(낮음 vs. 높음)에 따라서 상위-하위범주 동일시 수준이 모두 높은 참가자들에게서 내집단 투사가 발생하는지 검증하는 계획비교를 실시했으나, 이 분석에서는 범주복잡성이 낮은 조건에서 상위-하위범주 동일시가 모두 높

은 사람들에게 내집단 투사가 강하게 발생한 결과만 검증되었을 뿐 범주복잡성이 높을 때 외집단 태도에 대해 상위수준 범주동일시의 순기능이 관찰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¹⁾

그러나 앞서 논했듯이, 공동 상위범주에 대한 동일시는 외집단에 대한 우호적 태도와 집단 간 긍정적 상호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며(Dovidio et al., 2007; Gaertner et al., 1993) 이는 특히 상위수준 범주복잡성이 높을 때 발생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Wenzel et al., 2007). 개념적으로 상위수준 범주복잡성이 높은 것은 전형성이 유사한 다양한 하위범주들이 상위범주를 구성한다는 지각을 의미한다. 이 경우 구성원들이 독특하고 긍정적인 하위범주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한 외집단과 비교 및 경쟁할 필요가 없으므로 내집단과는 다른 외집단의 고유한 속성을 인정하고 긍정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상위수준 범주복잡성이 높을 때, 상위범주에 대한 동일시 수준이 높을수록 외집단에 대한 관용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상위수준 범주복잡성이 낮은 것은, 상위범주가 단지 소수의 하위집단으로 구분되며 상위범주의 전형적이거나 이상적인 속성을 이들이 나누어 지니고 있다는 지각이 우세함을 의미한다. 이 경우 하위범주 비교대상이 특정되기 때문에 해당 외집단을 폄하함으로써 내집단을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동기적 편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Mummendey & Wenzel, 1999). 따라서 상위수준 범주복잡성 수준이 낮을 때는 외집단 태도에 대한 상위범주 동일시의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종합하면, 상위범주 동일시의 외집단 관용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상위수준 범주복잡성이 높을 때는 유의하지만 범주복잡성이 낮을 때는 유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론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외집단 관용에 대한 상위범주 동일시의 효과를 상위수준 범주복잡성이 조절하는 상호작용 효과를 가설화하였다(가설 1).

상위수준 범주복잡성과 범주동일시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두 요인의 독립성을 전제해야 한다. 일부 선행연구(Peker et al., 2010, 연구 3)는 복잡하고 포괄적인 상위범주 표상이 상위범주에 대한 동일시를 경감시키기 때문에(Brewer, 1991; Brewer, Manzi, & Shaw, 1993) 내집단 투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범주복잡성이 높은 조건에서 낮은 조건보다 범주동일시 수준이 낮음을 보였다. 그러나 다른 연구들에서는 상위수준 범주복잡성과 범주동일시 수준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Ehrke et al., 2014; Waldzus et al., 2003, 2005). 본 연구에서도 상위수준 범주에 대한 지각적인 표상(복잡성)과 정서적인 애착(동일시)은 독립적인 구성개념으로 전제한다. 이는 내집단 정체성이 인지, 정서, 가치 평가의 다요인으로 구성된다는 이론적 전제와도 일관된다(Ellemers & de Gilder, 2022; Leach et al., 2008; Tajfel, 1978).

외집단 관용과 남북한 통합지향 행동의도

외집단 관용은 내집단과는 차별화되는 외집단의 고유한 속성을 인정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Mummendey & Wenzel, 1999). 공동 상위범주에 속한 외집단에 대한 관용은 내외집단이 대립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이어지고, 따라서 외집단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 및 행동과 나아가 갈등 상황에서

1) Waldzus 등(2003, 연구 2)은 참가자들에게 상위범주(유럽)와 하위범주(독일) 동일시 수준을 각각 9점 범위의 연속선상에서 측정하고, 중간점을 기준으로 동일시가 낮거나 높은 것으로 이분화한 후 네 개의 참가자 군집(상위범주-하위범주 동일시 수준 순서대로 저-저, 저-고, 고-저, 고-고)을 구분했다. 그리고 상위수준 범주복잡성이 낮거나 높은 조건에서 상위범주-하위범주 동일시 군집을 교차분류하여 여덟 개 조건을 구성했다. 그리고 계획비교 시 상위수준 범주복잡성이 낮은 조건-높은 조건 순서로 [-1, -1, -1, 3, 0, 0, 0, 0]의 비교 계수를 사용하여, 범주복잡성이 낮은 조건에서 이중정체성이 우세하거나(3) 그렇지 않은(-1) 참가자들 간의 내집단 투사 수준을 비교분석하였다.

집단 간 화해와 통합을 지향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추론과 일관되게, 인도네시아인들의 공동 상위범주(국가)에 대한 동일시로 예측된 하위범주 외집단(인도네시아 내 이슬람교도) 관용이 외집단과의 화해에 관한 인지(예: 신뢰), 정서(예: 죄책감), 행동의도(예: 사과) 요인을 정적으로 예측한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Zadugisti, Mashuri, Zuhri, Haryati, & Ula, 2020). 본 연구에서도 남북한 관계에서 외집단 관용이 남북한 화해와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행동의도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남북한 사회통합을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단일 국가를 이루는 통일로 전제하였다(최훈석, 이하연, 권영미, 박주화, 2021). 이는 고착된 갈등의 궁극적인 해결은 누적된 적대감을 해소하고 조화롭고 평화적인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라는 관점(Kelman, 2008; Nadler, 2012)에 기반한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통합지향 행동으로, 먼저 통일을 위해 구성원들이 직접 취할 수 있는 시민참여(civic engagement) 행동을 규정하였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 행동은 일상생활에서 유관정보 탐색 및 교육 참여, 자원봉사, 지역사회운동에의 참여 등 개인과 집단 수준에서 여러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Omoto, Snyder, & Hackett, 2010). 한국에서도 대북인식 혹은 통일인식 개선 교육이나 비정부기구(NGO) 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구성원들의 남북

통합지향 시민참여 행동의도를 증진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남북통합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양측의 정부 기관이며 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이 실질적으로 남북한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정부 정책에 대한 의사 표명은 구성원들의 정치참여(political engagement) 행동의 한 유형이다. 정치참여 행동은 투표, 정당 활동, 정치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직접적인 형태로 발생할 수도 있으나,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행할 수 있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다(참조: Ekman & Amnå, 2012). 구성원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 정부의 정책 수행과 궁극적으로 남북한의 정치교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 및 남북교류 정책 지지는 남북통합 관련 정치참여 행동의 중요한 단면이다(이하연, 최훈석, 권영미, 박주화, 2021).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외집단 관용이 남북한 관계에서 구성원들의 남북한 통합지향 시민참여 행동의도와 정치참여 행동인 남북교류 정책 지지를 정적으로 예측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가설 1에서 예측한 상위수준 범주복잡성과 범주동일시의 상호작용효과가 외집단 관용을 매개로 남북한 통합지향 시민참여 및 정치참여 행동을 예측하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할 것으로 예상했다(가설 2). 본 연구가설을 종합한 모형을 그림 1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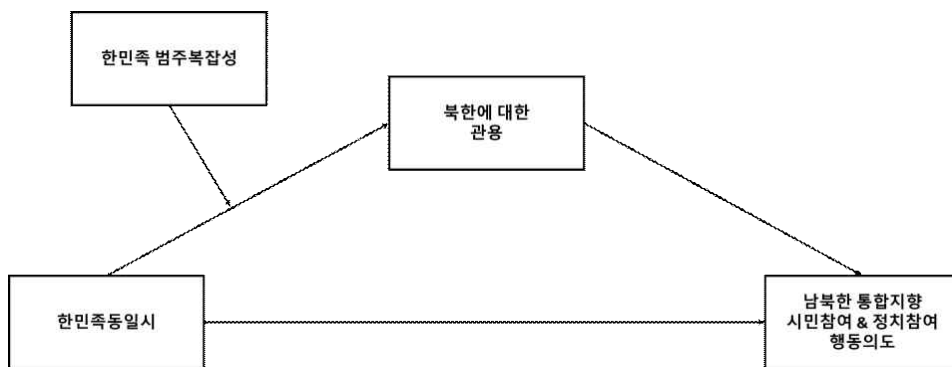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조절된 매개효과 모형)

방 법

실험을 종료하였다.

연구 참가자

본 연구는 2019년 6월부터 8월 사이 대한민국 (남한) 학부생 124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 중 한국 국적이 아닌 참가자 2명(한국/미국 이중 국적 2명), 연구 절차에서 오류가 있던 참가자 4 명(“한민족”이 무엇인지 질문한 1명; 범주복잡성 조작 재료에 관한 의혹이 공개 제기된 회기의 참가자 3명)을 제외한 118명(남 53명; 연령 평균 = 22.40, 표준편차 = 2.28)의 자료를 분석하였다.²⁾ 참가자들은 사전 동의 후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참가사례비를 받았다. 참가자들은 두 조건 (한민족 범주복잡성: 낮음 vs. 높음) 중 하나에 무선 배정되었다(조건 당 참가자 수: 범주복잡성 낮음 61명, 높음 57명). 본 연구는 기관 연구 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고 수행되었다 (IRB no. 관리4050-38(2018.5.31)).

연구 절차

연구가 시작되면 참가자들은 연구 절차 및 소요 시간 등에 관해 안내받은 후 참가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는 총 세 단계의 절차로 구분되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참가자들은 상위수준 내집단 동일시인 한민족동일시를 묻는 물음에 응답하였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한민족 범주복잡성을 조작하기 위하여 참가자들에게 한민족 구성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었다. 세 번째 단계에서 참가자들은 종속변수(북한에 대한 관용, 남북한 통합지향 시민참여 행동의도, 남북교류 정책 지지)와 인구통계변수(성별, 연령, 국적 등), 의혹점점 문항에 응답하였다. 응답이 모두 완료 되면 참가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안내한 후

2) 전체 참가자(N = 124)를 대상으로 가설 검증한 결과 본문에 수록한 결과와 동일하였다. 또한, 성별과 연령의 효과를 통제하고 분석했을 때 본문에 수록한 결과와 동일하였다.

한민족동일시

한민족동일시를 측정 한 선행연구(이하연 등, 2022; 최훈석 등, 2019, 2021)에서 사용되어 온, Hogg와 Hains(1996)의 집단동일시 척도에 기반하여 구성된 네 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예: “한민족에 얼마나 동일시한다고 느끼니까?”, “당신이 한민족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게 느껴집니까?”; 0점 = 전혀 느끼지 않는다, 8점 = 매우 강하게 느낀다). 분석 시 네 개 문항 평균(Cronbach's $\alpha = .93$)을 이용하였고, 점수가 클수록 한민족동일시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한민족 범주복잡성

한민족 범주복잡성(낮음 vs. 높음)을 조작하기 위해, Peker 등(2010)에서 상위수준 범주복잡성 조작의 효과성이 검증된 방법을 활용하였다. 참가자들은 한민족공동체(상위범주)와 하위범주의 특성을 설명하는 유인물을 제공받았다(그림 2). 한민족 범주복잡성이 낮은 조건에서는 한민족과 남북한에 관한 설명을 제시한 후 한민족의 생활양식 및 문화적 관습(총 9개 속성)을 남한 또는 북한 주민들이 지니고 있는지 O, X로 표시한 표가 제시되었다. 한민족 범주복잡성이 높은 조건에서는 한민족과 남북한 및 재외국민, 재외교포에 관한 설명을 제시한 후 한민족의 속성들을 남한 주민, 북한 주민, 재외국민과 재외교포들이 지니고 있는지 O, X로 표시한 표를 제시하였다. 즉, 한민족 범주복잡성이 낮은 조건에서는 한민족이 남북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한민족 범주복잡성이 높은 조건에서는 한민족이 남북한뿐만 아니라 재외국민과 재외교포의 여러 하위범주로 구성된 것으로 정보가 제공되었다. 두 조건에서 제시된 한민족의 속성은 동일하였고, 남북한 성원들이 공통적으로 혹은 개별적으로 지닌 속성 역시 동일하였다. 또한, 하위범주 성원들이 지니거나 혹은 지니지 않은 한민족 속성의 개수는 모두 균등하여 각 하위범주의 한민

범주복잡성 낮은 조건

한민족은 '단군의 자손들'이라는 반만년 동안 이어진 공동의 뿌리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민족입니다. 하지만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한민족은 남한과 북한이라는 두 집단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은 오랜 기간의 거주지 다양화로 인해 비슷한 특성을 공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혀 다른 특성을 지니기도 합니다. 이러한 한민족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생활 양식, 언어 등 일상 생활의 여러 단면에서 드러납니다. 다음 장에는 이러한 한민족 내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들의 다양한 특성이 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래 특성들의 해당사항 있음(○) 혹은 없음(X)은 집단 간 상대적 차이를 의미합니다. 아래의 표를 유의하여 읽어주시시오.

	남한 주민	북한 주민
기념일 등에 한복을 입는다.	○	○
한민족 전통이다.	○	○
젓가락을 능숙히 사용한다.	○	○
설이나 추석 등의 명절을 친다.	○	○
친인척 관계에 따라 복잡한 호칭이 있다.	○	○
요리할 때 젓갈류를 자주 사용한다.	○	×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니다.	×	×
만 나이를 사용한다.	×	○
중·고등학교에서 세계사를 필수과목으로 이수한다.	×	○

범주복잡성 높은 조건

한민족은 '단군의 자손들'이라는 반만년 동안 이어진 공동의 뿌리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민족입니다. 하지만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한민족은 남한, 북한, 재외국민, 그리고 재외동포라는 네 집단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위 네 집단의 사람들은 오랜 기간의 거주지 다양화로 인해 비슷한 특성을 공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혀 다른 특성을 지니기도 합니다. 이러한 한민족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생활 양식, 언어 등 일상 생활의 여러 단면에서 드러납니다. 다음 장에는 이러한 한민족 내 남한 주민, 재외국민, 북한 주민, 재외동포의 다양한 특성이 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래 특성들의 해당사항 있음(○) 혹은 없음(X)은 집단 간 상대적 차이를 의미합니다. 아래의 표를 유의하여 읽어주시시오.

	남한 주민	재외국민 (외국 거주 한국 국적자)	북한 주민	재외동포 (고려인/조선족 등 외국 국적자)
기념일 등에 한복을 입는다.	○	○	○	○
한민족 전통이다.	○	○	○	○
젓가락을 능숙히 사용한다.	○	○	○	○
설이나 추석 등의 명절을 친다.	○	○	○	×
친인척 관계에 따라 복잡한 호칭이 있다.	○	○	○	×
요리할 때 젓갈류를 자주 사용한다.	○	×	×	×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니다.	×	×	×	○
만 나이를 사용한다.	×	×	○	○
중·고등학교에서 세계사를 필수과목으로 이수한다.	×	○	○	○

그림 2. 범주복잡성 조작 재료

족에 대한 전형성(해당 집단이 한민족의 전형적 속성을 얼마나 많이 지니고 있는지)이 같도록 통제하였다.

종속변수

북한에 대한 관용. 외집단 관용을 측정한 선행연구(Waldzus et al., 2005)를 토대로, “나는 남한과 다른 북한의 고유한 특징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나는 북한과 남한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북한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존중한다”, “나는 북한사람들의 고유한 문화를 존중한다”의 네 개 문항(0점 = 전혀 아니다, 8점 = 매우 그렇다)을 사용하여 물었다. 분석 시 네 개 문항 평균(Cronbach's $\alpha = .76$)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북한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남북한 통합지향 시민참여 행동의도. 집단 간 화해와 통합에 관한 선행 연구(Shnabel, Nadler,

Ullrich, Dovidio, & Carmi, 2009)를 참조하여, 통합지향 시민참여 행동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문항을 개발하여 측정하였다. 총 여덟 개 문항(예: “통일관련 시민단체나 NGO에게 정기적 기부를 한다”,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통일을 지지하는 게시글을 작성한다”)에 참가자들은 각 행동을 할 의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응답하였다(0점 = 전혀 없다, 8점 = 매우 강하다). 분석에는 여덟 개 문항 평균(Cronbach's $\alpha = .90$)을 이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남북한 통합지향 시민참여 행동의도가 강한 것을 의미한다.

남북교류 정책지지. 남북한 통합지향 정치참여 행동으로 정부의 남북교류 정책을 얼마나 지지하는지를 측정하고자, “남북 이산가족 교환방문”, “동해선 남북 철도 운행”, “남북 문화 교류사업”, “남북 공동 우리말 사전 사업”의 네 개 정책(Jung et al., 2016)을 각각 얼마나 지지하는지(0점 = 전혀 아니다, 8점 = 매우 그렇다)를 물었다. 그리고 남북교류 정책에 대한 실질적

자원 분배 의향을 묻고자, 참가자들에게 국가 잉여예산 중 일부인 약 20조 원을 청년복지기금(국가장학금, 청년고용안정기금 등)과 남북교류협력단(음악, 영화, 스포츠 등 남북한의 다양한 사회문화 교류 도모) 설립 비용에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이 문항은 ‘청년복지기금:남북교류협력단 설립’의 예산 할당 비율을 각각 ‘10:0’, ‘9:1’에서 ‘1:9’, ‘0:10’의 항목 사이에 표시하는 11점 척도로 제시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청년복지기금보다 남북교류협력단 설립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한 것으로, 즉 남북교류 정책을 더 지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 시 다섯 개 문항의 표준화 점수(Fisher’s z-transformation score)를 평균(Cronbach’s $\alpha = .80$)하여 이용했으며, 점수가 클수록 정부의 남북교류 정책을 지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 과

연구에서 측정된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수 간 상관은 표 1에 제시하였다. 변수 간 상관에서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관되게 한민족동일시가 북한에 대한 관용, 남북한 통합지향 시민

참여 행동의도와 남북교류 정책 지지와 각각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북한에 대한 관용이 남북한 통합지향 시민참여 행동의도와 남북교류 정책 지지와 중간 수준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하여 두 독립변수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예측변수로 투입하는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한민족 범주복잡성 낮음 = 0, 높음 = 1; 상호작용효과는 두 독립변수의 평균중심화 값을 곱하여 산출. 회귀분석에서 1단계: 두 독립변수의 주효과, 2단계: 상호작용효과 투입). 조절된 매개효과는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6.0에서 PROCESS macro v.4.0, model 7(Hayes, 2018)을 사용하여 검증했다.

북한에 대한 관용

북한에 대한 관용을 종속변수로 하는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한민족동일시가 북한에 대한 관용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b = 0.22$, $SE_b = 0.07$, $t(114) = 3.32$, $p = .001$, 한민족 범주복잡성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b = -0.23$, $SE_b = 0.23$, $t(114) = -1.00$, $p = .322$. 보다 중요하게, 한민족 범주복잡성과 한민족동

표 1. 변수 간 기술통계치 및 상관

	1	2	3	4	5	6	7
1. 성별	1						
2. 연령	-.20*	1					
3. 한민족동일시	.23*	.02	1				
4. 한민족 범주복잡성	-.05	.11	.03	1			
5. 북한에 대한 관용	.28**	-.22*	.29**	-.08	1		
6. 통합지향 시민참여 행동의도	.32**	-.28**	.30**	-.03	.47**	1	
7. 남북교류 정책 지지	.39**	-.24**	.25**	-.18	.54**	.60**	1
평균		22.40	4.11		5.60	2.81	0.00
(표준편차)		(2.28)	(1.72)		(1.33)	(1.84)	(0.74)

주. $N = 118$; * $p < .05$, ** $p < .01$; 성별 남 = 0, 여 = 1; 한민족 범주복잡성 낮음 = 0, 높음 = 1.

표 2. 북한에 대한 관용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단계	변수	<i>b</i>	<i>SE_b</i>	<i>t</i>	ΔR^2	<i>R</i> ²
1단계	한민족동일시	.22	.07	3.26**	-	.09*
	한민족 범주복잡성	-.23	.24	-0.97	-	
2단계	한민족동일시	.22	.07	3.32**	-	.13**
	한민족 범주복잡성	-.23	.23	-1.00	-	
	한민족동일시 × 한민족 범주복잡성	.32	.13	2.38*	.04*	

주. * $p < .05$, ** $p < .01$; 한민족 범주복잡성 낮음 = 0, 높음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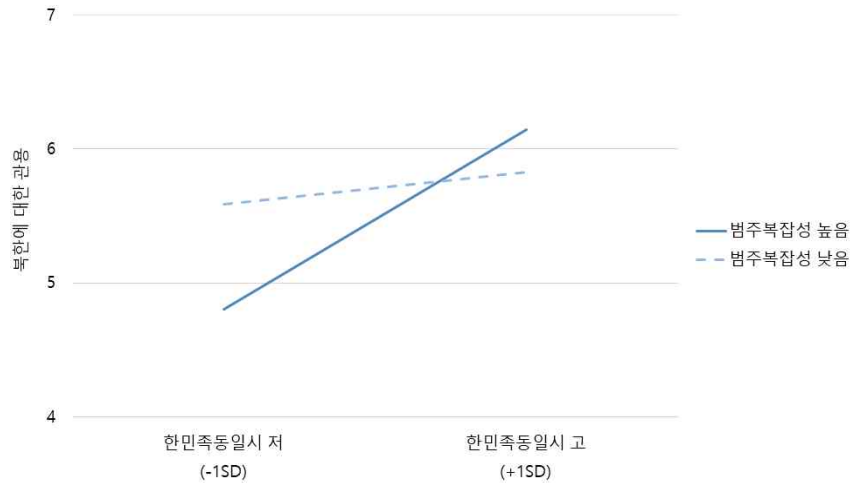


그림 3. 북한에 대한 관용에서 한민족 범주복잡성과 한민족동일시의 상호작용효과

일시의 상호작용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Delta R^2 = 0.04$, $b = 0.32$, $SE_b = 0.13$, $t(114) = 2.38$, $p = .019$. 연구가설을 토대로 한민족 범주복잡성의 각 조건(높음 vs. 낮음)에서 한민족동일시의 예측효과가 유의한지 검증하는 단순기울기 분석을 실시한 결과(참조: Aiken & West, 1991), 한민족 범주복잡성이 높은 조건에서 한민족동일시가 북한에 대한 관용을 정적으로 예측했다, $b = 0.39$, $SE_b = 0.10$, $t(114) = 4.03$, $p < .001$. 반면 한민족 범주복잡성이 낮은 조건에서는 한민족동일시가 북한에 대한 관용을 예측하지 않았다, $b = 0.07$, $SE_b = 0.09$, $t(114) = 0.73$, $p = .466$ (그림 3). 즉 가설 1과 일관되게, 한민족동일

시가 외집단 관용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효과는 한민족 범주복잡성이 높은 조건에서만 나타났으며, 한민족 범주복잡성이 낮은 조건에서는 한민족동일시가 외집단 관용을 예측하지 않았다.

남북한 통합지향 행동의도에서 북한에 대한 관용의 매개효과

가설 2에서 제시한 한민족 범주복잡성과 한민족동일시의 상호작용효과가 북한에 대한 관용을 매개로 남북한 통합지향 시민참여 행동의도와 남북교류 정책 지지를 각각 예측하는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이하연 등 / 남북한 관계에서 한민족 범주복잡성과 한민족동일시가 외집단 관용 및 집단 간 통합지향 행동의도에 미치는 효과

표 3. 조절된 매개효과(모형) 검증 결과

	모형	<i>b</i>	<i>SE_b</i>	95% 신뢰구간(CI)	
				<i>LL</i>	<i>UL</i>
1.	한민족 범주복잡성 × 한민족동일시 → 북한 관용 → 시민참여 행동의도	0.188	0.086	0.012	0.353
	(한민족 범주복잡성 높음 조건) 한민족동일시 → 북한 관용 → 시민참여 행동의도	0.228	0.079	0.080	0.388
	(한민족 범주복잡성 낮음 조건) 한민족동일시 → 북한 관용 → 시민참여 행동의도	0.040	0.055	-0.057	0.161
2.	한민족 범주복잡성 × 한민족동일시 → 북한 관용 → 남북교류 정책 지지	0.092	0.054	0.006	0.217
	(한민족 범주복잡성 높음 조건) 한민족동일시 → 북한 관용 → 남북교류 정책 지지	0.112	0.050	0.030	0.222
	(한민족 범주복잡성 낮음 조건) 한민족동일시 → 북한 관용 → 남북교류 정책 지지	0.020	0.024	-0.030	0.065

주. *b*: index of indirect effect, *LL*: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 *UL*: 95% 신뢰구간에서 상한값

간접효과의 유의도는 무선 표집 5,000번을 통해 모수 추정을 시행하여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는지를 확인하였다. 먼저 남북한 통합지향 시민참여 행동의도에 대한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결과, 한민족 범주복잡성과 한민족동일시의 상호작용효과가 북한에 대한 관용을 매개로 시민참여 행동의도를 예측하는 간접효과가 유의하였다, 조절된 매개효과(간접효과) $b = 0.188$, $SE_b = 0.086$, 95% 신뢰구간 [0.012, 0.353]. 구체적으로 한민족 범주복잡성이 높은 조건에서 한민족동일시 수준이 북한에 대한 관용을 매개로 시민참여 행동의도를 정적으로 예측했고, 간접효과 $b = 0.228$, $SE_b = 0.079$, 95% 신뢰구간 [0.080, 0.388], 반면 한민족 범주복잡성이 낮은 조건에서는 한민족동일시가 북한에 대한 관용을 매개로 시민참여 행동의도를 예측하는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b = 0.040$, $SE_b = 0.055$, 95% 신뢰구간 [-0.057, 0.161].

한편 남북교류 정책 지지에 대한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결과, 한민족 범주복잡성과 한민족

동일시의 상호작용효과가 북한에 대한 관용을 매개로 남북교류 정책 지지를 예측하는 간접효과가 유의하였다, 조절된 매개효과(간접효과) $b = 0.092$, $SE_b = 0.054$, 95% 신뢰구간 [0.006, 0.217]. 구체적으로 한민족 범주복잡성이 높은 조건에서는 한민족동일시 수준이 북한에 대한 관용을 매개로 남북교류 정책 지지를 정적으로 예측했고, 간접효과 $b = 0.112$, $SE_b = 0.050$, 95% 신뢰구간 [0.030, 0.222], 한민족 범주복잡성이 낮은 조건에서는 한민족동일시가 북한에 대한 관용을 매개로 남북교류 정책 지지를 예측하는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b = 0.020$, $SE_b = 0.024$, 95% 신뢰구간 [-0.030, 0.065].

종합하면, 한민족 범주복잡성이 높은 조건에서는 한민족동일시가 강할수록 북한에 대한 관용 수준이 높고, 북한에 대한 관용이 남북한 통합지향 시민참여 행동의도와 남북교류 정책 지지를 정적으로 예측했다. 따라서 한민족 범주복잡성이 높을 때 한민족동일시가 북한에 대한 관

용을 매개로 하여 남북한 통합지향 행동의도를 정적으로 예측하는 간접효과가 유의하였다. 그러나 한민족 범주복잡성이 낮은 조건에서는 한민족동일시가 북한에 대한 관용을 예측하지 못하여, 남북한 통합지향 행동의도에서 북한에 대한 관용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가설 2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논 의

한국인들은 분단 이후 약 80여 년 동안 교류가 단절된 채로 남북한의 고유한 문화를 구축해 왔다. 동시에 이들은 분단 이전에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한반도에 거주해온 한민족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에 대한 관용과 남북한 통합지향 행동의도에서 한민족 범주의 복잡성 지각과 한민족에 대한 동일시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 한민족의 범주복잡성이 높은 조건에서 참가자들의 한민족동일시가 북한에 대한 관용을 정적으로 예측했지만, 한민족 범주복잡성이 낮은 조건에서는 한민족동일시가 북한에 대한 관용을 예측하지 못했다. 또한, 한민족 범주복잡성과 한민족동일시의 상호작용효과가 북한에 대한 관용을 매개로 남북한 통합지향 시민참여 및 정치참여 행동의도를 예측했다.

학술적 및 실용적 함의

내집단 투사 모형(Wenzel et al., 2007)에 따르면 남북한과 한민족처럼 하위범주가 상위범주에 완전히 내재해있는 경우에는 상위범주에 대한 동일시가 강하더라도 하위수준 외집단을 차별 혹은 배척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하위수준 외집단을 폄하하여 내집단의 독특성과 긍정성을 유지하고자 동기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동 상위범주가 다양한 속성을 지닌 여러 하위범주로 구성되어있다고 표상할 경우, 하위범주 외집

단의 고유한 속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내집단의 독특하고 긍정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며 외집단에 대한 동기적 편향이 감소할 수 있다고 제안되었다(Mummendey & Wenzel, 1999).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상위수준 범주복잡성이 상위범주에 대한 동일시의 효과를 조절하는지 직접 검증한 바 없다. 본 연구에서는 상위수준 범주복잡성과 상위범주 동일시의 상호작용효과를 구체화하여 상위수준 범주복잡성이 높을 때만 상위범주 동일시가 외집단에 대한 우호적 태도 및 집단 간 통합지향 행동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또한, 본 연구에서 검증된 효과가 일상에서의 시민참여 행동의도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참여 행동에서 모두 유의하여 실용적인 함의를 지닌다.

고착된 갈등을 해소하고 집단 간 평화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내집단 정체성의 역할과 작동 기제를 밝히는 것은 중요하다(Baron, 2008; Bar-Tal & Halperin, 2013). 특히 남북한은 상위범주(민족)-하위범주(국가)로 구분되는 층화된 사회정체성 구조를 이룬다는 점에서(Jung et al., 2016) 각 수준에서 내집단 정체성의 효과를 구체화하여 검증하기에 적합한 장면이다. 남북한 관계에서 공동 상위범주인 한민족정체성의 긍정적 효과(최훈석 등, 2019)와 역효과(이하연 등, 2022)가 모두 검증된 시점에서, 본 연구와 같이 한민족정체성의 효과를 조절하는 요인을 탐색하고 순기능을 증진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은 학술적으로나 실용적으로 모두 함의를 지닌다.

한편, 상위범주 동일시의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데 필수적인 전제는 상위범주가 구성원들에게 유의미하고 가치 있게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Wenzel et al., 2007, 2017). 상위범주가 긍정적이기보다 부정적으로 인식될 경우에는 상위범주와의 유사성이 내집단의 독특하고 긍정적인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 도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하위수준에서 내집단 선호 편향(내

집단 투사)이나 외집단 배척이 발생할 여지가 적다(Alexandre et al., 2016, 연구 3; Wenzel, Mummendey, Weber, & Waldzus, 2003, 연구 3). 그뿐만 아니라 상위범주가 모호하게 표상될 경우, 즉 상위범주 표상이 불분명하거나 실체성이 낮게 지각될 경우 정체성 불확실성(identity uncertainty)을 경험하여 상위범주에 대한 동일시의 긍정적 효과가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Hogg, 2007; 반면 확실하게 정의되지 않은 상위범주 표상이 내집단 투사를 줄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관련하여 다음을 참조: Waldzus et al., 2003, 연구 1).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하면, 공동 상위범주가 구성원들에게 분명한 실체로서 유의미하고 긍정적으로 인식되며, 동시에 본 연구에서 검증된 바와 같이 복잡성이 높도록 표상될 때 상위범주에 대한 동일시가 하위범주 내외집단 간의 관용을 증진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추론된다.

이를 토대로 현재의 남북한 관계, 그리고 장래 한국에서 한민족공동체가 유의미하고 긍정적인 사회범주로서 기능할지에 관해서 논의가 가능하다. 휴전과 분단상태가 지속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한국인들의 한민족정체성은 약화되고 있다(강원택, 2020; 박주화 등, 2020). 또 다른 한편으로,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단일민족국가의 유지는 불가능하며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본 연구결과와 같이 남북한 관계 개선에서 한민족정체성의 강화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으나, 한민족정체성은 또 다른 상황에서 타민족타인종에게 배타적인 태도와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인들의 내집단 정체성이 이문화에 대한 배타적 태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한 가지 가능한 대안은 공동의 상위범주를 전제하지 않고 해당 사회범주 표상의 복잡성을 직접 증진하는 것이다(Machunsky, Meiser, & Mummendey, 2009). 다원화되고 포용적인 미래 한국 사회 구축을 위하여, 후속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의 범주복잡성을 증진하는 개입전략을 개발

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연구의 제한점 및 장래 과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장래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상위범주 동일시의 효과를 상위수준 범주복잡성이 조절하는지를 검증하였다. 반면, 내집단 투사 모형(Wenzel et al., 2007)에서는 상위범주와 하위범주에 대한 동일시 수준이 모두 높은, 즉 이중 사회정체성이 우세한 성원들에게서 상위수준 범주복잡성이 내집단 투사를 경감하여 외집단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예측할 것으로 제안한다. 즉, 내집단 투사 모형과 비교하면 본 연구에서는 이중 사회정체성이 내집단 투사를 예측하는지와 이를 상위수준 범주복잡성이 조절하는지를 직접 검증하지 않았다. 남북한 관계에서 구성원들의 이중 사회정체성이 내집단 투사를 예측한다는 선행연구(이하연 등, 2022)와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후속연구에서는 구성원들의 이중 사회정체성과 내집단 투사의 관계에서 상위수준 범주복잡성의 조절효과가 유의한지, 그리고 내집단 투사를 매개로 외집단 관용 및 집단 간 통합지향 행동의도가 예측되는지 확장하여 검증하는 것이 가능하다.

둘째, 본 연구는 단일실험연구로 진행되었으나 연구방법론을 다양화하여 반복검증이 필요하다. 본 실험에서는 한민족의 생활양식이나 관습(예: “설이나 추석 등의 명절을 쉰다”, “기념일에 한복을 입는다”)에 해당하는 속성을 여러 하위범주가 지니고 있는지를 도표로 제시하여 한민족 범주복잡성을 조작했다(참조: Peker et al., 2010). 이 방법은 상위수준 범주 표상의 복잡성을 높거나(다수 하위범주로 구성) 낮도록(소수 하위범주로 구성) 조작하는 데 그 효과성이 검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하위범주의 상위범주에 대한 전형성(prototypicality)을 균일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 방법을 보완하여, 구성원들의 성격이나 가치관 등 보다 본질적인 속성을 활용하여 범주복잡성

을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참가자들이 한민족의 다양성(diversity)이나 단일성(unity)을 직접 떠올리도록 하여 범주복잡성을 조작(Waldzus et al., 2003, 2005)하는 것도 가능하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상위범주에 대한 동일시를 측정하여 효과를 검증했지만, 후속연구에서는 내집단 동일시 수준을 조작(예: Haslam, Oakes, Reynolds, & Turner, 1999; Stone & Crisp, 2007)하여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것도 연구의 확장을 위해 필요하다.

셋째, 하위범주 내외집단의 사회구조적 관계에 따라 상위수준 범주복잡성 및 상위범주에 대한 동일시의 효과가 달라지는지 탐색할 수 있다. 남북한은 인구수나 경제 규모에서 남한이 북한보다 다수이자 고지위로 해석된다(이하연 등, 2021, 2022).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다수-고지위 하위범주에서 상위수준 범주복잡성과 상위범주 동일시 수준이 높을 때 외집단 관용 및 집단 간 통합지향 행동의도가 증진된 것으로 해석된다. 선행연구에서 상위수준 범주복잡성이 다수-고지위와 소수-저지위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모든 하위범주가 대등하게 전형적이라는 인식을 일으킨다는 점에서(Alexandre et al., 2016) 본 연구에서 검증된 효과는 소수-저지위 하위범주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될 것을 추론 가능하다. 또 다른 한편으로, 한민족 범주복잡성 표상이 내집단과 유사한 지위의 전형적인 하위범주들로 구성될 경우와, 내집단보다 고지위의 하위범주들로 구성될 경우, 혹은 반대로 내집단보다 저지위이거나 상위범주에 비전형적인 혹은 낙인찍힌(stigmatized) 하위범주들로 표상될 경우, 각각 범주복잡성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한 가지 가능한 가설은, 상위범주가 내집단보다 고지위이면서 전형적인 하위범주들로 표상될 경우에는 고지위 외집단과의 공동범주화가 내집단에도 긍정적인 함의를 지니기 때문에 범주복잡성의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저지위 낙인 집단인 하위범주들로 표상될 경우에는 공동범주화 시 내집단의 긍정적인 정체성에 위협이 되어

범주복잡성의 효과가 약화되거나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Dieckmann, Steffens, & Methner, 2018). 본 연구에서는 상위수준 범주복잡성이 높은 조건에서 지위가 높거나 낮은 하위범주가 모두 제시되었고 하위범주들의 전형성은 동일하게 통제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범주복잡성 표상의 내용을 다양화하여 각 유형에 따른 효과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20대 대학생 대상 실험연구로 진행되어, 참가자와 모집단에서의 인구통계 특성(성별, 연령, 교육수준,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따른 한민족동일시 혹은 북한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도에서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검증 및 추론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대규모 대표 표집으로 실시된 선행연구에서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특성이 내집단 동일시(한민족동일시, 국가동일시 등)와 북한 혹은 통일에 대한 태도를 예측한 결과들을 토대로(예: 박주화 등, 2020; 황태희, 2020) 이를 구체적으로 가설화하여 검증할 수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인구통계특성에 따른 내집단 정체성이나 대북 및 통일태도에서의 차이를 설명하는 심리요인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치적 태도와 상관되는 가치관(예: 안전대 평화 가치; Braithwaite, 1997)이나 사회적 신념(참조: 이하연 등, 2021) 등이 한국인들의 대북 및 통일태도를 예측하는 심리적 기저 요인일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즉, 성별이나 연령과 같은 표면적인 인구통계특성이 구성원들의 심리요인을 매개로 하여 대북 및 통일태도를 예측하는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뿐만 아니라 남북한 관계와 같은 집단 간 갈등 상황에서 외집단 태도를 예측하는 핵심요인 중 하나는 집단 간 접촉이다(Pettigrew, 1998; Pettigrew & Tropp, 2006). 집단 간 접촉은 실제로나 가상으로, 혹은 대리적으로 여러 확장된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Crisp & Turner, 2012; Wright, Aron, McLaughlin-Volpe, & Ropp, 1997) 남북한이 분단된 상황에서도 그 효과를 관찰할 수 있다. 후속연구

구에서는 이와 같은 요인들이 한국인들의 내집단 동일시와 대북 및 통일정책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지 종합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³⁾

나 사회 정의를 위한 행동을 하게 하는 요인에 대해 연구한다.

저자 소개

이하연은 성균관대학교에서 사회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개인주의-집단주의와 집단 창의성의 관계에 관해 연구하였으며, 최근 주요 연구주제는 공감, 고정관념 및 편견,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집단행동, 남북한 관계와 평화 등이다.

최훈석은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집단 과정 및 집단 간 관계를 연구한다. 최근에는 집단주의 가치와 독립적 자기의 시너지 모형을 적용하여 집단 효과성, 집단 간 화해와 갈등해소, 집단에서 의(義)와 충(忠)의 발현, 개인과 집단의 공동번영 등의 주제를 연구하고 있다.

노중현은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석사 과정 중 분 연구에 참여하였다. 축소된 사회정체성 구조 내 집단 간 관계 및 이주민 문화적응이 주 관심사이다.

도은별은 성균관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고, 동대학원에서 사회심리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관심사는 집단 간 공감 및 집단 기반 정서, 정치 극화 등이 있다.

한지민은 성균관대학교에서 사회심리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번영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책임에 관한 주제에 관심이 있다. 구체적으로, 현상유지 상태(status quo)에서 개인이 협력하거

참고문헌

강원택 (2020). [한국인의 정체성] 한국인이 보는 역사, 민족, 국가, 그리고 세계_한국인의 국가 정체성과 민족 정체성: 15년의 변화. EAI 워킹페이퍼, 1-21.

박주화, 강혜석, Steven Sloman, Eran Halperin, Babak Hemmatian, Nimrod Nir (2020). 2020 한국인의 평화의식. 서울: 통일연구원.

유연재, 김혜숙 (2000). '한집단' 범주의 접화가 북한사람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91-112.

이하연, 권영미, 서정길, 박주화, 최훈석 (2022). 한국인의 이중 사회정체성과 내집단 투사, 남북한 통일태도 간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6(4), 281-306.

이하연, 최훈석, 권영미, 박주화 (2021). 사회적 신념 및 남북 통일에 대한 태도, 통일정책 지지 간의 관계: 조절 및 매개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5(4), 27-47.

최훈석, 이하연, 정지인 (2019). 축소된 사회정체성 구조에서 정체성 불확실성과 내집단 동일시, 남북한 화해 태도 및 행동의도 간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3(4), 45-59.

최훈석, 이하연, 권영미, 박주화 (2021). 통일에 대한 태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7(3), 259-284.

황태희 (2020). [한국인의 정체성] 한국인이 보는 역사, 민족, 국가, 그리고 세계_북한과 통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EAI 워킹페이퍼, 1-19.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Sage.

Alexandre, J. D., Waldzus, S., & Wenzel, M. (2016).

3) 본 논의를 제한한 익명의 심사위원에게 감사한다.

- Complex inclusive categories of positive and negative valence and prototypicality claims in asymmetric intergroup relation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5, 457-483.
<https://doi.org/10.1111/bjso.12148>
- Baron, R. M. (2008). Reconciliation, trust, and cooperation: Using bottom-up and top-down strategies to achieve peace in the Israeli-Palestinian conflict. In A. Nadler, T. Malloy, & J. D. Fisher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conciliation* (pp. 275-298). Oxford University Press.
- Bar-Tal, D. (2000). From intractable conflict through conflict resolution to reconciliation: Psychological analysis. *Political Psychology*, 21, 351-365.
<https://doi.org/10.1111/0162-895X.00192>
- Bar-Tal, D. (2007). Sociopsychological foundations of intractable conflict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0, 1430-1453.
<https://doi.org/10.1177/0002764207302462>
- Bar-Tal, D., & Halperin, E. (2011). Socio-psychological barriers to conflict resolution. In D., Bar-Tal (Ed.), *Intergroup conflicts and their resolution: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pp. 217-240). Psychology Press.
- Bar-Tal, D., & Halperin, E. (2013). The psychology of intractable conflicts: Eruption, escalation, and peacemaking. In L. Huddy, D. O. Sears, & J. S. Levy (Eds.),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psychology* (pp. 923-956). Oxford University Press.
- Braithwaite, V. (1997). Harmony and security value orientations in political evalu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3, 401-414.
<https://doi.org/10.1177/0146167297234006>
- Brewer, M. B. (1991). The social self: On being the same and different at the same tim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7, 475-482.
<https://doi.org/10.1177/0146167291175001>
- Brewer, M. B., Manzi, J. M., & Shaw, J. S. (1993). In-group identification as a function of depersonalization, distinctiveness, and status. *Psychological Science*, 4, 88-92.
<https://doi.org/10.1111/j.1467-9280.1993.tb00466.x>
- Crisp, R. J., & Hewstone, M. (2007). Multiple social categorization. In M. 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39, pp. 163-254). Elsevier Academic Press.
[https://doi.org/10.1016/S0065-2601\(06\)39004-1](https://doi.org/10.1016/S0065-2601(06)39004-1)
- Crisp, R. J., & Turner, R. N. (2012). The imagined contact hypothesis. In M. P. Zanna & J. M. Olson (Ed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46, pp. 125-182). Elsevier Academic Press.
<https://doi.org/10.1016/B978-0-12-394281-4.00003-9>
- Dieckmann, J., Steffens, M. C., & Methner, N. (2018). Back to the roots: When diversity evokes increased group-based conventionalism.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21, 351-367.
<https://doi.org/10.1177/1368430216670245>
- Dovidio, J. F., Gaertner, S. L., & Saguy, T. (2007). Another view of "we": Majority and minority group perspectives on a common ingroup identity. In W. Stroebe & M. Hewstone (Eds.),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Vol. 18, pp. 296-330). Taylor & Francis.
<https://doi.org/10.1080/10463280701726132>
- Ehrke, F., Berthold, A., & Steffens, M. C. (2014). How diversity training can change attitudes: Increasing perceived complexity of superordinate groups to improve intergroup relation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53, 193-206.
<https://doi.org/10.1016/j.jesp.2014.03.013>
- Ekman, J., & Amnå, E. (2012). Political participation and civic engagement: Towards a new typology. *Human Affairs*, 22, 283-300.
doi:10.2478/s13374-012-0024-1

- Ellemers, N., & de Gilder, T. C. (2022). Categorization and identity as motivational principles in intergroup relations. In P. A. M. Van Lange, E. T. Higgins, & A. W. Kruglanski (Eds.), *Social psychology: Handbook of basic principles* (3rd ed., pp. 452-472). Guilford Press.
- Gaertner, S. L., Dovidio, J. F., Anastasio, P. A., Bachman, B. A., & Rust, M. C. (1993). The common ingroup identity model: Recategorization and the reduction of intergroup bias. In W. Stroebe & M. Hewstone (Eds.),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Vol. 4, pp. 1-26). Taylor & Francis.
<https://doi.org/10.1080/14792779343000004>
- Haslam, S. A., Oakes, P. J., Reynolds, K. J., & Turner, J. C. (1999). Social identity salience and the emergence of stereotype consensu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5, 809-818.
<https://doi.org/10.1177/01461672990250070>
- Hayes, A. F. (2018).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Guilford publications.
- Hogg, M. A. (2007). Uncertainty-identity theory. In M. 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39, pp. 69-126). Elsevier Academic Press.
[https://doi.org/10.1016/S0065-2601\(06\)39002-8](https://doi.org/10.1016/S0065-2601(06)39002-8)
- Hogg, M. A., Abrams, D., & Brewer, M. B. (2017). Social identity: The role of self in group processes and intergroup relations.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20, 570-581.
<https://doi.org/10.1177/1368430217690909>
- Hogg, M. A., & Hains, S. C. (1996). Intergroup relations and group solidarity: Effects of group identification and social beliefs on depersonalized att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295-309.
<https://doi.org/10.1037/0022-3514.70.2.295>
- Jung, J., Hogg, M. A., & Choi, H-S. (2016). Reaching across the DMZ: Identity uncertainty and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Political Psychology*, 37, 341-350.
<https://doi.org/10.1111/pops.12252>
- Kelman, H. C. (2008). Reconciliation from a social-psychological perspective. In A. Nadler, T. Malloy, & J. D. Fisher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conciliation* (pp. 15-32). Oxford University Press.
- Leach, C. W., van Zomeren, M., Zebel, S., Vliek, M. L. W., Pennekamp, S. F., Doosje, B., Ouwerkerk, J. W., & Spears, R. (2008). Group-level self-definition and self-investment: A hierarchical (multicomponent) model of in-group iden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5, 144-165.
<https://doi.org/10.1037/0022-3514.95.1.144>
- Machunsky, M., Meiser, T., & Mummendey, A. (2009). On the crucial role of mental ingroup representation for ingroup bias and the ingroup prototypicality-ingroup bias link. *Experimental Psychology*, 56, 156-164.
<https://doi.org/10.1027/1618-3169.56.3.156>
- Mummendey, A., & Wenzel, M. (1999). Social discrimination and tolerance in intergroup relations: Reactions to intergroup differen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3, 158-174.
https://doi.org/10.1207/s15327957pspr0302_4
- Nadler, A. (2012). Intergroup reconciliation: Definitions, processes, and future directions. In L. R. Tropp (Ed.), *The Oxford handbook of intergroup conflict* (pp. 291-308). Oxford University Press.
- Omoto, A. M., Snyder, M., & Hackett, J. D. (2010). Personality and motivational antecedents of activism and civic engagement. *Journal of Personality*, 78, 1703-1734.
<https://doi.org/10.1111/j.1467-6494.2010.00667.x>

- Park, B., & Judd, C. M. (2005). Rethinking the link between categorization and prejudice within the social cognition perspectiv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9*, 108-130.
https://doi.org/10.1207/s15327957pspr0902_2
- Peker, M., Crisp, R. J., & Hogg, M. A. (2010). Predictors of ingroup projection: The roles of superordinate category coherence and complexity.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13*, 525-542. <https://doi.org/10.1177/1368430209360205>
- Pettigrew, T. F. (1998). Intergroup contact theor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9*, 65-85.
<https://doi.org/10.1146/annurev.psych.49.1.65>
- Pettigrew, T. F., & Tropp, L. R. (2006). A meta-analytic test of intergroup contact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 751-783.
<https://doi.org/10.1037/0022-3514.90.5.751>
- Shnabel, N., Nadler, A., Ullrich, J., Dovidio, J. F., & Carmi, D. (2009). Promoting reconciliation through the satisfaction of the emotional needs of victimized and perpetrating group members: The needs-based model of reconcili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5*, 1021-1030.
<https://doi.org/10.1177/0146167209336610>
- Stone, C. H., & Crisp, R. J. (2007). Superordinate and subgroup identification as predictors of intergroup evaluation in common ingroup contexts.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10*, 493-513.
<https://doi.org/10.1177/1368430207081537>
- Tajfel, H. (1974). Social identity and intergroup behaviour. *Social Science Information, 13*, 65-93.
<https://doi.org/10.1177/053901847401300204>
- Tajfel, H., & Turner, J. C. (1986).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G. A. William & W. Stephen (Eds.),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pp. 276-293). Nelson Hall.
- Turner, J. C. (1987). A self-categorisation theory. In J. C. Turner, M. A. Hogg, P. J. Oakes, S. D. Reicher, & M. S. Wetherell (Eds.), *Rediscovering the social group: A self-categorisation theory* (pp. 42-67). Blackwell.
- Vallacher, R. R., Coleman, P. T., Nowak, A., & Bui-Wrzosinska, L. (2012). Why do conflicts become intractable? The dynamical perspective on malignant social relations. In L. R. Tropp (Ed.), *The Oxford handbook of intergroup conflict* (pp. 13-28). Oxford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1093/oxfordhb/9780199747672.013.0002>
- Waldzus, S., Mummendey, A., & Wenzel, M. (2005). When “different” means “worse”: In-group prototypicality in changing intergroup context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1*, 76-83. <https://doi.org/10.1016/j.jesp.2004.05.006>
- Waldzus, S., Mummendey, A., Wenzel, M., & Weber, U. (2003). Towards tolerance: Representations of superordinate categories and perceived ingroup prototypicalit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9*, 31-47.
[https://doi.org/10.1016/S0022-1031\(02\)00507-3](https://doi.org/10.1016/S0022-1031(02)00507-3)
- Wenzel, M., Mummendey, A., & Waldzus, S. (2007). Superordinate identities and intergroup conflict: The ingroup projection model. In W. Stroebe & M. Hewstone (Eds.),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Vol. 18, pp. 331-372). Taylor & Francis.
<https://doi.org/10.1080/10463280701728302>
- Wenzel, M., Mummendey, A., Weber, U., & Waldzus, S. (2003). The ingroup as pars pro toto: Projection from the ingroup onto the inclusive category as a precursor to social discrimin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 461-473.
<https://doi.org/10.1177/0146167202250913>
- Wenzel, M., Waldzus, S. & Steffens, M. C. (2017).

- Ingroup projection as a challenge of diversity: Consensus about and complexity of superordinate categories. In C. G. Sibley & F. K. Barlow (Eds.), *The Cambridge handbook of the psychology of prejudice* (pp. 65-89).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right, S. C., Aron, A., McLaughlin-Volpe, T., & Ropp, S. A. (1997). The extended contact effect: Knowledge of cross-group friendships and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73-90.
<https://doi.org/10.1037/0022-3514.73.1.73>
- Zaduqisti, E., Mashuri, A., Zuhri, A., Haryati, T. A., & Ula, M. (2020). On being moderate and peaceful: Why Islamic political moderateness promotes outgroup tolerance and reconciliation. *Archive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42*, 359-378.
<https://doi.org/10.1177/0084672420931204>
- 1 차원고접수 : 2023. 01. 15.
수정원고접수 : 2023. 03. 29.
최종게재결정 : 2023. 03. 29.

The Interactive Effect of Superordinate Category Complexity and Superordinate Ingroup Identification on Outgroup Tolerance and Support for the Intergroup Integration in the Context of the Two Koreas

Hayeon Lee Hoon-Seok Choi JungHyun Roh Eunbyul Do Jimin Han

Sungkyunkwan University

The current study examined the interplay between superordinate category (i. e., 'Ethnic Han') complexity and superordinate ingroup identification on outgroup (North Koreans) tolerance and support for intergroup integration amongst South Koreans. Category complexity reflects the extent to which the category contains distinctive and equally representative subgroups. We hypothesized that individuals' superordinate ingroup identification positively predicts outgroup tolerance when the superordinate category is perceived as complex rather than simple in its representational structure. In addition, we expected that this effect would positively predict outgroup tolerance, which in turn, positively predicts behavioral intentions for intergroup integration. In a laboratory experiment involving South Korean undergraduates ($N = 124$), we measured participants' level of identification with the superordinate category and manipulated the superordinate category complexity (high vs. low). Results indicated, as expected, that in the high superordinate category complexity condition, superordinate ingroup identification positively predicted outgroup tolerance. When category complexity was low, there wa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superordinate ingroup identification and outgroup tolerance. Further, outgroup tolerance mediated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superordinate category complexity and the ingroup identification on behavioral intentions for intergroup integration. We discussed the role of superordinate category complexity and superordinate ingroup identification in establishing harmonious and integrative subgroup relationships between the two Koreas.

Keywords : superordinate category complexity, superordinate ingroup identification, outgroup tolerance,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